

기도 2

기도의 기본기

본문: 요한계시록 3:19-20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나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불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19,20)

우리가 무엇을 배우든지 기본기가 아주 중요하다. 기도를 배우는데도 기본기가 있어야 한다. 기도의 기본기는 **인내와 실습**이다. 나는 지금도 기도를 배우는데 이 두 가지 기본기를 연마 하는데 힘쓰고 있다. 이 두 가지 기본기를 반복함으로 나의 기도 생활은 점점 풍성해 지는 것을 많이 경험 한다.

1. 실습

내가 처음 자동차 운전을 배울 때 친구 목사님이 나를 무조건 도로 주행 실습을 시켰다. 그 경험을 통해서 운전을 배우는 데 큰 도움을 얻었다. 기도의 첫 번째 기본기는 실습이다. 실습이란 아주 간단하다. 기도의 자리에 앉는 것이다.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앉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방해가 많아서 기도의 자리에 앉지 못하게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시간이 없어 기도하지 못한다고 불평하지만 얼마나 시간을 낭비 하는 경우가 많은 지 모른다. 각자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시간이 나면 자연스럽게 빠져 들기를 좋아 하는 습관이 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시간만 나면 그 일에 빠진다, 그 일에 시간 간질 모르고 많은 시간을 보내고 막상 가장 중요한 기도할 시간은 낼 수가 없다. 하나의 예를 들면 요즈음 우리의 시간을 가장 많이 빼앗는 가장 큰 유혹은 스마트폰이다. 나이가 많고 적고 간에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들여다 보는데 많은 시간을 빼앗긴다. 물론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다 준 유익이 수없이 많다. 그러나 스마트폰을 들여다 보는 시간의 단 몇분의 일만이라도 사용하여 기도를 한다면 그 유익은 상상 할 수 없이 클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스마트폰을 들여다 보는 것은 자연스럽게 되지만 기도는 자연스럽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도를 할 것이냐 스마트폰을 볼 것인가를 항상 선택을 해야 한다. 내가 지금 스마트폰을 볼 것인가 기도를 해야 할 것인가? 선택을 해야 한다. 시급하게 스마트폰을 봐야 한다면 스마트폰을 봐야 할 것이다. 그렇게 긴급 하지 않는다면 기도하기로 선택 해야 한다.

그런데 기도를하기로 선택하기 어려움이 많이 있다. 기도는 우리가 영적인 힘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하는데 영적으로 너무 무력해서 도무지 기도의 자리에 앉기가 싫다. 싫은 정도가 아니라 필사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마음이 생긴다. 우리의 마음이 죄와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적인 생각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일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고, 마음이 굳어 있고 딱딱해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 정말 싫다.

이런 마음의 상태가 바로 본문에서 예수님이 책망한 라오디아 교회의 상태이다. 라오디게아의 문제

는 전심(Whole heartedness)으로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덤지도 차지도 아닌 미지근한(lukewarm)신앙이 문제 이었다.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나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불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19,20)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마음이 죄와 부정으로 가득차서 도무지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그 순간, 라오디아 교회 와같은 미지근한 상태(lukewarm)가 영적으로 생각하면 기도하기 가장 좋은 기회다. 기도의 자리에 도저히 들어 가기를 거부하는 마음이 가득찬 무기력한 상태에 있을 때 기도하기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야 한다. 이때는 회개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라고 기도해야한다. 회개란 억지로 죄를 찾아 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드니 내 마음에 들오와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회개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에 대한 오해가 죄를 깊이 깨닫고 눈물 코물 흘리면서 자기 죄를 고백한 것이 회개라고 생각한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러나 회개란 내 생각을 의지적으로 바꾸어 주님의 생각을 하는 것이다. 기도의 자리에 도저히 앉기 싫고 내가 좋아한 것 예를 들면 스마트 폰을 본다던가 야구 경기를 본다던가 이런 것을 하고 싶은 데서 단호하게 그것을 끊고 기도의 자리에 앉는 것이 바로 회개다. 이것이 엄청난 큰 회개다, 이제 기도의 자리에 앉게 되면 일단 기도에 있어서 큰 성공이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실습이다. 이와 같은 실습을 많이 해야 기도의 기본기를 잘 갖추게 된다. 첫 번째, 기도의 기본기가 뭐라고요? 기도의 자리에 앉아기도를 해 보는 것 곧 기도의 실습이다. 이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

2. 인내.

이제 기도의 자리에 앉게 되면 무조건 10분 이상은 그 자리에 앉아 인내해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참고 앉아 있어야 한다. 기도의 자리에 앉게 되면 금방 기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인내하며 기다린 것이 인내다. 10분 동안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 안 돼 라고 단호하게 자신에게 말해야 한다. 나는 요즈음은 무조건 기도의 자리에 앉게 되면 1시간 이상은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면 안 된다고 다짐 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훈련을 자주 한다.

그러면 10분을 앉아 있든지 1시간을 앉아 있든지 앉아 있으려면 그 시간을 무엇을 생각하며 시간을 보내야 하는가? **“불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말씀대로 “주님 제가 마음 문을 엽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낸다. 그런데 아무리 주님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라고 말해도 금방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신 것을 느낄 수 없다. 그러나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인내한다. 그리고 계속 성경에 나온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한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말씀 하신 약속이 무엇인가등을 생각하며 주님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라고 기도하며 기도의 자리에 앉아 인내한다. 나는 주로 이 인내의 시간에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묵상한다. 요한복음 15:4, 마태복음 11:28-30, 시편 23편, 사도행전 1:8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묵상한다. 그렇게 10분 정도 앉아 있으면 성령님이 내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마음이 부드러워 지고 또 뜨거워 져서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기도 제목을 주시고 내가 이것을 기도하면 기도를 들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주시기도 하신다.

기도의 자리에서 10분이고 한시간이고 앉아서 어떻게 인내하며 시간을 보내야 할 것인가를 계속 연구해 나가는 것이 바로 기도를 배우는 것이다. 우리가 무슨 운동을 배우든지 기본기를 잘 익혀 둔 사람은 스스로 잘 발전 시켜서 전문가가 된 것이다. 기본기가 잘 된 축구 선수들이 박지성이 되기도 하고 손흥민이 되기도 한다. 박지성이나 손흥민이 되는 것보다 기도에 기도의 성공자들, **쥘리 물러나 허드슨 테일러**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훨씬 좋을 것이다. 아무나 박지성이나 손흥민이 될 수 없지만 누구나 기도를 잘 배우면 쥘리 물로도 될 수 있고 허드슨 테일러와 같은 기도의 대가가 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기본기 곧 기도의 자리에 앉게 되는 실습, 사람에게 따라서는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기도의 실습을 많이 해 낼 수 있는 사람, 한번 기도의 자리에 앉기만 하면 무엇인가 해내고야 마는 그런 **인내심을 발전시켜 나간 사람**이 기도의 전문가가 되는 것이다. 축구 선수가 되는 것도 어려운데 기도의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훨씬 더 어렵다. 어렵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과 다르다. 한번 마음을 먹어보라. 그리고 기도의 기본기를 몸에 익히라. 그러면 기도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재미있고, 그래서 자꾸 기도하고 싶고 기도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성경을 읽든지 설교를 듣든지, 성경 공부를 하든지, 기도에 관한 책을 읽든지 기도에 대한 눈이 뜨이고 기도를 배우고자 하는 소원이 강해지고 기도를 배우는 기쁨이 생긴다. 내가 처음 탁구를 배울 때, 자나 깨나 탁구가 생각나고 탁구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어떤 희생도 아끼기 않고 많은 시간과 돈을 드려서 탁구를 배웠던 기억이 난다. 기도를 배우는데 이와 같은 열심을 품는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우리가 기도를 배우려고 하면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길이 많이 있다.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많이 나오려면 어린 축구 꿈 나무들을 많이 키워야 한다고 한다. 세계적인 바둑 선수가 많이 나오려면 바둑을 어려서부터 배운 꿈 나무들이 많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세계를 움직이는 기도의 대가들이 많이 나오기 위해서는 기도를 배우는 기도의 꿈나무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 기도를 가르치고 배우는 일의 가장 기본이 실습과 인내이다. 이 기본기를 스스로 연마하고 많은 사람에게 가르쳐서 이 시대를 움직이는 기도의 사람들을 많이 양성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우리 큰 비전을 가지고 **기도를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뜻을 같이 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 드린다. 우선 여러분의 가까운 가족, 또는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보기를 바란다.